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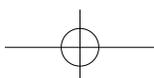
마약류별 일반현황

1절 아편, 헤로인

2절 코카인

3절 암페타민류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4절 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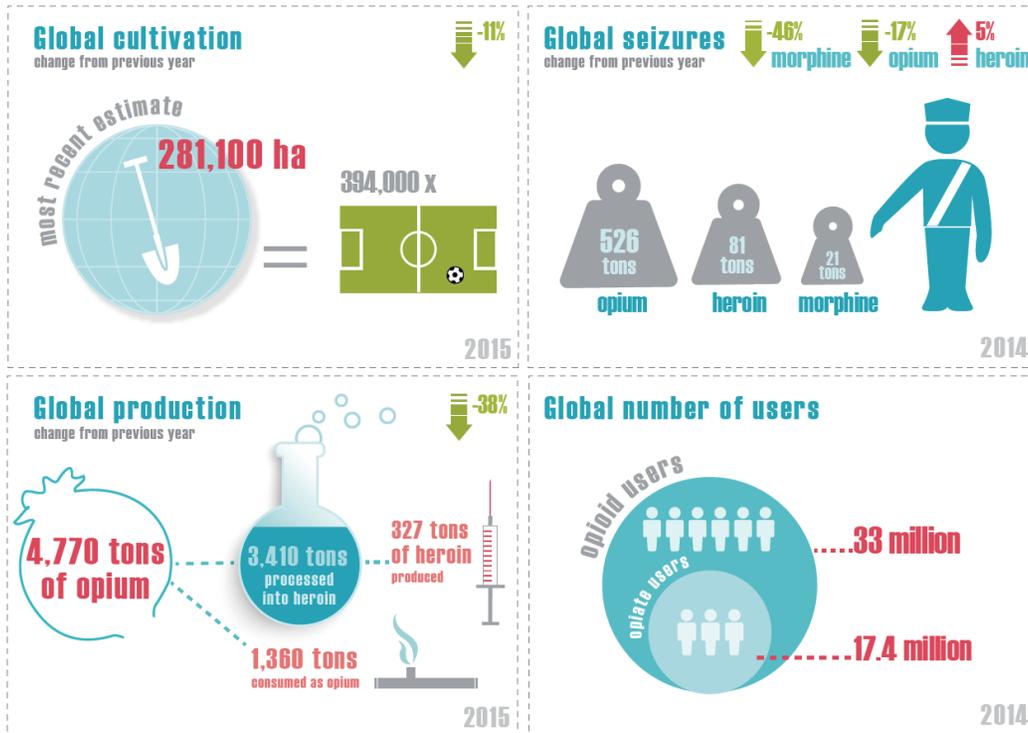


제1절 아편, 헤로인¹⁾

1. 전 세계 통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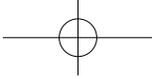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 아편은 50여 개국에서 불법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재배면적은 183,000ha로 65%, 미얀마는 55,500ha로 20%, 멕시코는 24,800ha로 9%, 라오스는 5,700ha로 2%를 차지함
- 2015년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은 전년도 생산량인 4,770톤보다 38%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이는 최대 생산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48%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의 흉작이 그 원인임

[그림 2-1] 아편 및 헤로인 관련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1) UNODC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1.~4. 부분)



[표 2-1]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

(단위: 헥타르)

국가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남아시아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193,000	157,000	123,000	123,000	131,000	154,000	209,000	224,000	183,000
	파키스탄		1,701	1,909	1,779	1,721	362	382	493	217	372
소계			194,701	158,909	124,779	124,721	131,362	154,382	209,493	224,217	183,372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1,500	1,600	1,900	3,000	4,100	6,800	3,900	6,200	5,700
	미얀마		27,700	28,500	31,700	38,100	43,600	51,000	57,800	57,600	55,500
태국			205	228	211	289	289	209	265		
소계			29,405	30,388	33,811	41,389	47,989	58,009	61,965	64,065	61,465
중남미											
콜롬비아			715	394	356	341	338	313	298	387	
멕시코			6,900	15,000	19,500	14,000	12,000	10,500	11,000	17,000	24,800
과테말라								220	310	640	
소계			7,615	15,394	19,856	14,341	12,338	11,033	11,068	18,027	25,827
기타국가들			3,979	8,312	7,489	10,211	15,811	11,471	12,225	10,400	10,400
합계			235,700	213,003	185,935	190,662	207,500	234,895	295,291	316,709	281,064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표 2-2] 세계 아편 생산(추정)량

(단위: 톤)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별										
서남아시아										
황금의	아프가니스탄	7,400	5,900	4,000	3,600	5,800	3,700	5,500	6,400	3,300
초승달지대	파키스탄	43	48	44	43	9	9	12	5	9
소계		7,443	5,948	4,044	3,643	5,809	3,709	5,512	6,405	3,309
동남아시아										
황금의	라오스	9	10	11	18	25	41	23	92	
삼각지대	미얀마	460	410	330	580	610	690	870	670	647
태국		3	5	3	5	6	3	4		
소계		472	424	345	603	641	734	897	766	781
중남미										
콜롬비아		14	10	9	8	8	8	11	12	
멕시코		150	325	425	300	250	220	225	360	475
과테말라							4	6	14	
소계		164	335	434	308	258	232	242	386	501
기타국가들		15	139	134	181	281	156	159	175	175
합계		8,091	6,841	4,953	4,730	6,983	4,831	6,810	7,732	4,766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2. 소비(남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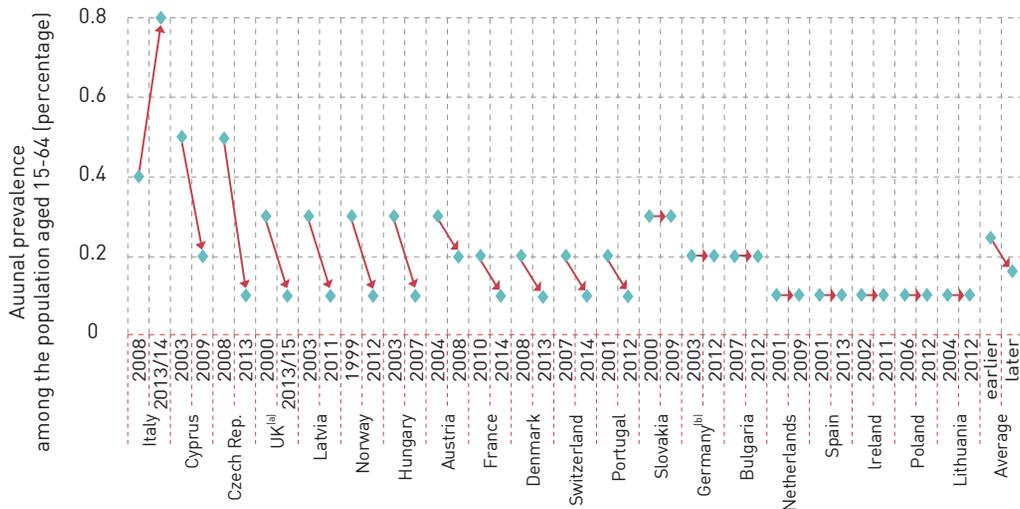
- UNODC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의 아편, 모르핀, 헤로인을 포함한 아편류 (opiates)²⁾ 남용자 수는 1,700만 명으로, 아편 남용률은 서아시아 0.9%, 중앙아시아 0.8%, 유럽 0.56%, 북미 0.5%로 보고됨

2) 아편유사제의 일부로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 양귀비에서 추출된 다양한 제품을 뜻함



- 지난 10년간 북미지역의 헤로인 남용이 증가하면서 헤로인 투약관련 사망자 수 역시 증가한 반면, 서·중앙 유럽의 남용자 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안정화 또는 감소세임
- 아시아의 아편 남용률은 1998년~2014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오세아니아의 남용률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아편 시장이 있는 호주의 남용률 감소 때문임
- 아프리카의 아편유사제(opioids)³⁾ 남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2014년까지 아시아의 전체 아편류 남용에 큰 변화가 없으나 오세아니아는 감소함

[그림 2-2] 1999년~2014년까지 유럽의 헤로인 남용률 가계조사



^(a) England and Wales only; age group 16-59; ^(b) age group 18-64.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3) 양귀비의 알칼로이드(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화합물, 단일 물질의 명칭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광범위한 물질을 가리키며 현재 250종 이상 알려져 있음)를 부르는 일반적인 단어로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

3. 생산 동향

- 2015년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183,000 ha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2/3에 달하며 작년 재배 면적인 281,000 ha보다 11% 감소한 수치임
-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70%인 3,300톤의 아편이 생산되었고 미얀마에서는 14%인 650톤이 생산됨
-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아편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1%를 차지하는 500톤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1998년~2014년의 생산량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표 2-3] 세계 아편·헤로인 생산량 (2008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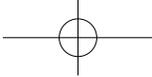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단위: 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아편 생산량	6,841	4,953	4,730	6,983	4,831	6,810	7,723	4,770
헤로인으로 제조되지 않은 아편의 양	2,360	1,680	1,728	3,400	1,850	2,600	2,450	1,360
헤로인으로 제조된 아편의 양	4,481	3,273	3,002	3,583	2,981	4,210	5,273	3,410
전체 헤로인 제조량	600	427	383	467	377	555	542	327

※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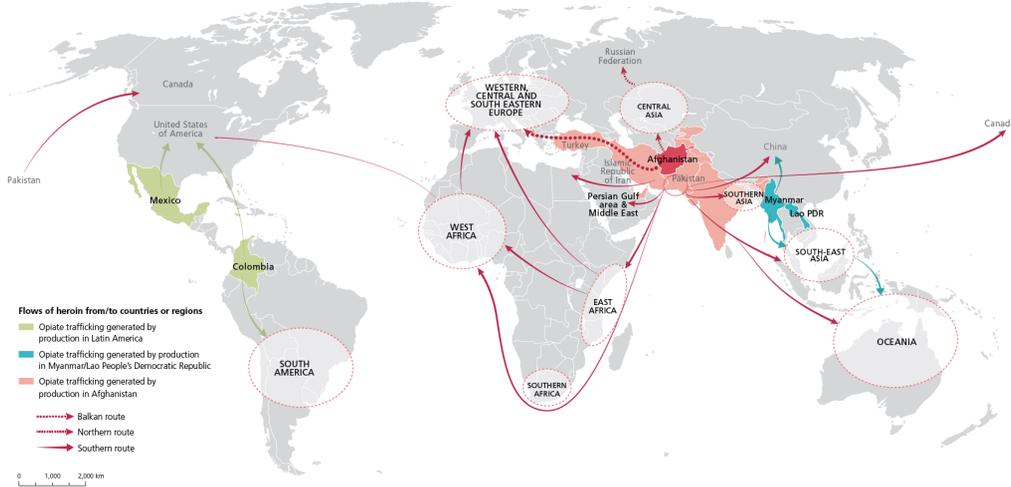
4. 밀매 동향

- 2009년~2014년까지 전 세계 아편류 압수량은 1980년부터 1997년 사이의 압수량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2014년 서남아시아에서 아편류가 가장 많이 압수되었고 유럽이 그 다음임
- 2014년 이란에서의 압수량이 전 세계 아편 압수량의 75%, 모르핀 압수량의 61%, 헤로인 압수량의 17%를 차지하였고, 터키의 헤로인 압수량은 16%, 중국 12%, 파키스탄 9%, 케냐와 미국이 각각 7%, 아프가니스탄 5%, 러시아 3%를 기록함



- 주로, 아프가니스탄산(産) 아편류가 남동유럽을 지나 이란과 터키를 경유하여 중·서유럽으로 이동하는 ‘발칸 루트(Balkan Route)’를 통해 헤로인이 밀반입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은 2012년 36톤에서 2014년 48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 기록한 66톤보다는 감소한 수치임
- 최근 파키스탄 또는 이란을 통해 걸프지역,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와 북미지역을 잇는 ‘남부 루트(Southern Route)’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아편류 압수량은 발칸루트에서 압수된 양보다 적지만, 헤로인과 모르핀의 압수량은 9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을 관통하는 ‘북부 루트(Northern Route)’는 전통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북·북동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이 공급되는 곳이었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아편이 공급되었음
- 미주지역의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은 1998년~2008년간 연평균 4톤에서 2009년~2014년간 연평균 7톤으로 증가하였고,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아편 생산량은 1998년~2008년간 연평균 151톤에서 2009년~2014년간 연평균 309톤으로 증가하여 두 배 가량 증가함
- 2009년~2014년 사이 미주지역에서 압수된 헤로인과 모르핀의 70% 이상이 미국에서 압수되었는데 1998년~2008년의 연평균 압수량은 2톤이며 2009년~2014년의 연평균 압수량은 5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 압수량은 6톤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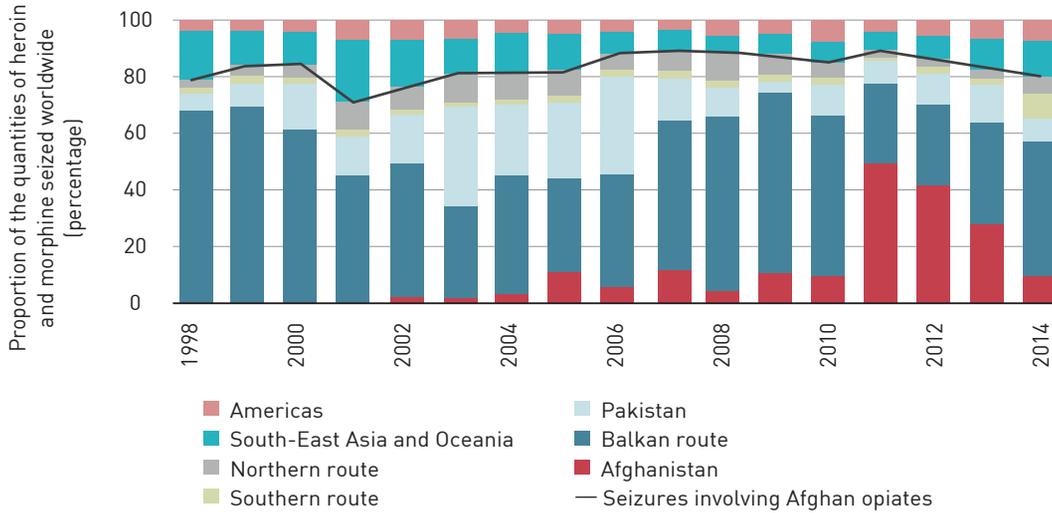
[그림 2-3] 세계 헤로인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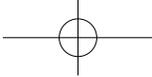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그림 2-4] 1998년~2014년 밀수루트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단위: 톤)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표 2-4]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	1	0	0	18	5	0	4	0	0	3
압수량(g)	18	0	0	1,914	81	0	3.5	0	0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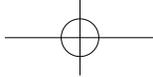
- 1990년대 초반까지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었으며, 최근 10여 년간 내국인 투약사범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자신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헤로인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 헤로인 밀수사건

- 2006. 6.경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바지 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첩탁콕 공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콘돔 4덩어리는 향문 안에, 콘돔 2덩어리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7.경 대만인 남성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향문 안에 5~6개 씩 은닉하여 캄보디아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인도로부터 헤로인 334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8.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98g 및 해시시 3.57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1.경 베트남인 3명이 헤로인 7.7g을 콘돔에 넣어 입 속에 은닉한 채 베트남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5. 6.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65g을 밀수입 (부산지검)
- 2015. 11.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2.54g을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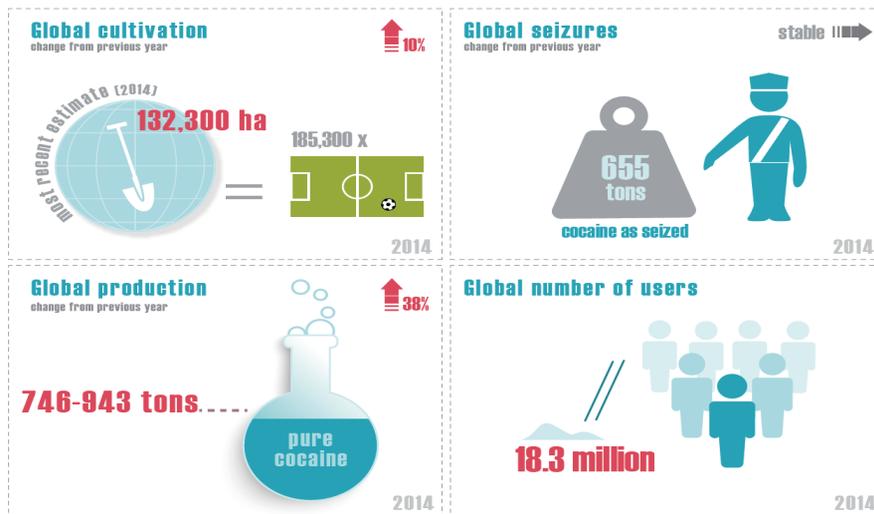


제2절 코카인⁴⁾

1. 전 세계 통계 개요

-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는 1998년 1,400만 명에서 2014년 1,88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코카 재배량은 2013년에 비해 10% 증가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양임
- 전 세계 코카인 제조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했으나 최대치를 기록한 2007년에 비해 24~27% 낮아 1990년대 후반 수준을 기록함
- 아프리카를 통한 코카인 밀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세 배 가량 증가(1998년~2008년간 평균 0.45톤씩 압수, 2009년~2014년간 평균 1.5톤이 압수), 오세아니아 지역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그림 2-5] 코카인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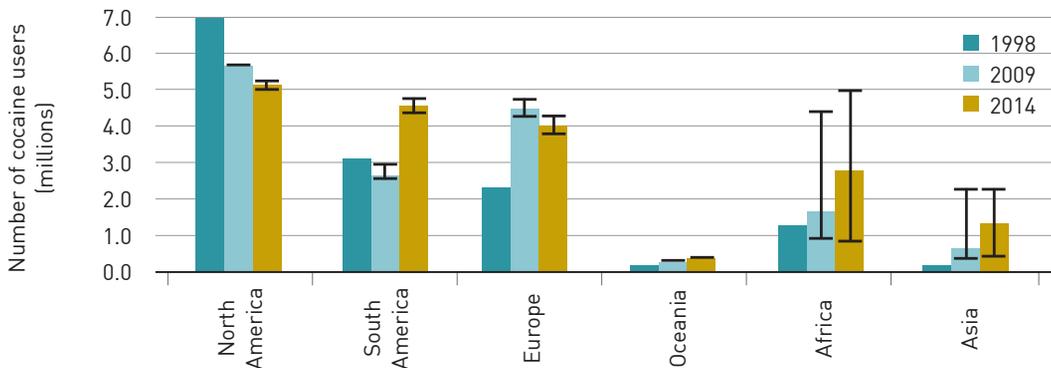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4)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1.~4. 부분)

2. 소비(남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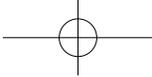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 수년간 북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이었으며 미국에서 2006년~2014년의 코카인 남용률이 32% 하락하면서 2006년~2013년의 코카인 관련 사망자 수 역시 34% 하락함
- 유럽의 코카인 남용률은 2007년 최고치를 경신한 후 현재 남용률은 1%로 안정화 단계로 폐수(廢水)를 분석한 결과 코카인 대사물질인 벤조일렉고닌(benzoyllecgonine)⁵⁾이 서·중·동남 유럽의 20개 국가 67개 도시에서 검출되었음, 도시마다 소비량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소비경향은 2011년~2014년 까지 안정화 단계로 보임
- 아시아의 코카인 압수량은 1998년~2008년간 평균 0.4톤에서 2009년~2014년간 평균 1.5톤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2-6] 1998년~2014년 지역별 코카인 남용자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5) 코카인 남용자가 소변과 함께 배출하는 물질로 코카인 투약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로 사용됨



3. 생산 동향

- 2014년의 코카 경작 면적이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전체 면적은 132,300ha이고,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두 번째로 적은 면적으로 2014년 전 세계 코카 경작면적은 2009년보다 19% 감소하였고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0년에 비해 40% 감소한 것이며 1998년도 보다 31% 적은 면적임
- 콜롬비아의 코카 경작면적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0년 이후 58%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69,000ha를 기록해 전 세계 경작의 52%를 차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상승하여 코카 경작이 대체작물보다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임
- 페루의 코카 경작면적은 2000년~2011년 사이 44% 증가했고 코카인 가격 역시 상승하였으나 대체작물 개발과 집중적인 제거 노력으로 인해, 2011년~2014년 페루의 코카 경작면적은 31%가량 감소한 42,900ha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코카 경작의 32%로 2000년대 수준을 회복한 것임
- 볼리비아는 대체작물 개발 등 정부의 노력으로 1990년 후반 코카 경작면적은 감소하였으나 2000년~2010년의 경작면적이 두 배로 상승하였고 2010년~2014년에는 4%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최근의 감소세는 대체작물 개발과 재배면적을 1가구당 1cato(0.16ha)로 제한했기 때문임
- 볼리비아의 2014년 총 코카 경작면적은 약 20,400ha로 전 세계 경작면적의 15%를 차지하였고 이는 1990년부터 1997년 사이 조사된 면적보다 절반 이하지만 2000년 보다는 40% 많은 면적임
- 2014년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943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대치를 기록한 2007년에 비해 25% 적은 양임(다만 최근 상승세 보임)

[표 2-5]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 (2005년~2014년)

(단위: ha)

연도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볼리비아	25,400	27,500	28,900	30,500	30,900	31,000	27,200	25,300	23,000	20,400
콜롬비아	86,000	78,000	99,000	81,000	73,000	62,000	64,000	48,000	48,000	69,000
페루 (인공위성 분석 지역)	48,200	51,400	53,700	56,100	59,900	61,200	64,400			
페루								60,400	49,800	42,900
합계	159,600	156,900	181,600	167,600	163,800	154,200	155,600	133,700	120,800	132,30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표 2-6] 코카인 생산량 (2006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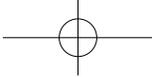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단위: 톤)

연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볼리비아	94	104	113						
콜롬비아	660	630	450	488	424	384	333	290	442
페루	280	290	302						
합계 (舊 환산율)	1,034	1,024	865	842	788	776	714	662	746
합계 (新 환산율)	1,232	1,234	1,122	1,111	1,060	1,051	973	902	943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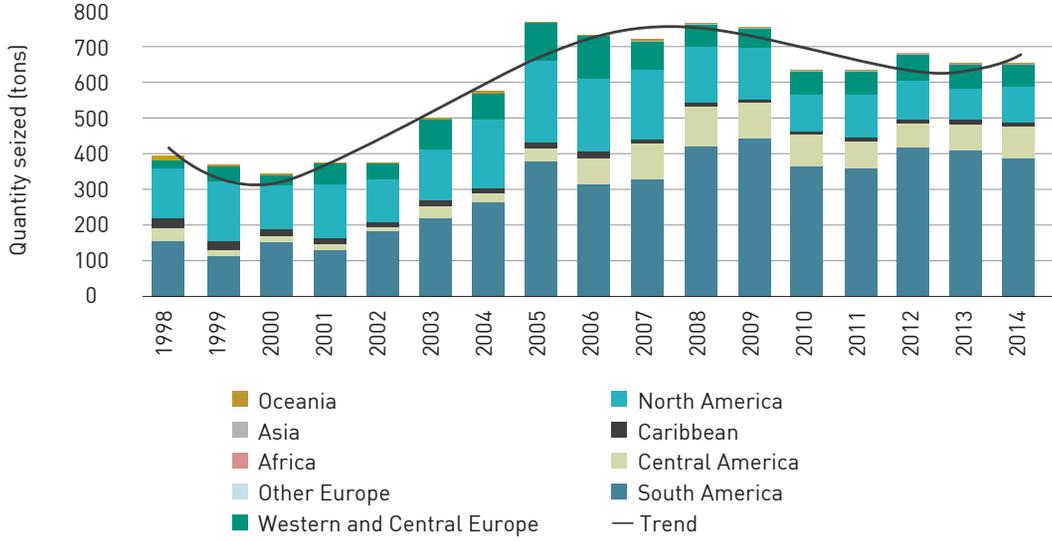
4. 밀매 동향

- 2009년~2014년 동안 총 153개 국가에서 코카인이 압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코카인이 안데스 지역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밀매됨
- 2014년 미주지역에서 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의 90%가 압수되었고 특히 남미에서 60%를 기록하였으며, 서·중유럽의 코카인 압수량은 전 세계 압수량의 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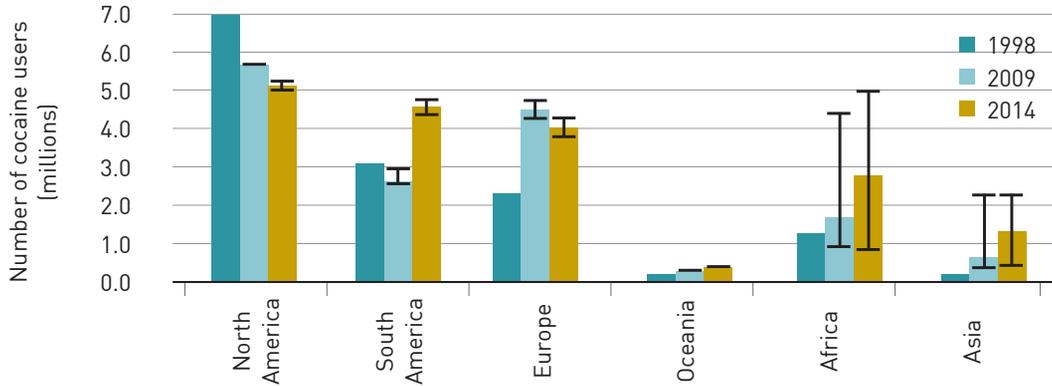
- 2014년 남미 전체의 코카인 압수량은 392톤으로 콜롬비아의 압수량이 이 가운데 56%로 전 세계 압수량의 1/3을 차지하며 에콰도르는 10%, 브라질·볼리비아·페루가 총 7%, 베네수엘라가 6%를 기록함
- 미국의 코카인 압수량은 북미의 90%, 전 세계의 15%를 차지하여 2009년~2014년 사이에 가장 많은 압수량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멕시코는 8%, 캐나다 2% 순임
- 2009년~2014년 사이 유럽으로 반입되는 코카인의 원산지는 콜롬비아산(産)이 42%로 가장 많으나 1998년~2008년 사이 유럽으로 반입되던 콜롬비아산(産) 코카인 양과 비교할 때 감소한 수치이며 그 다음으로 페루산(産)이 31%임
- 서아프리카가 코카인 밀수의 경유지로 이용되면서 아프리카의 코카인 압수량은 1998년 0.8톤에서 2007년 5.5톤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1.9톤으로 감소함
- 2009년~2014년 사이 서아프리카의 코카인 압수량은 아프리카 전체의 78%를 차지하였고 북아프리카가 11%를 차지함
- 2009년~2014년 사이 아시아의 코카인 압수량 가운데 동·동남아시아가 59%, 서남아시아에서 39%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 서남아시아의 코카인 압수량은 49%로 증가, 2009년~2014년 사이 아시아로 가장 많이 유통한 국가는 브라질, 그 다음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순임
- 1998년~2008년 사이 오세아니아의 코카인 압수량은 0.5톤에서 2009년~2014년 사이 1.2톤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99%가 호주에서 압수되었는데 호주의 14세 이상 인구의 코카인 남용률은 2004년 1%에서 2010년 2.1%로 두 배가량 증가함

[그림 2-7] 1998년~2014년 지역별 코카인 압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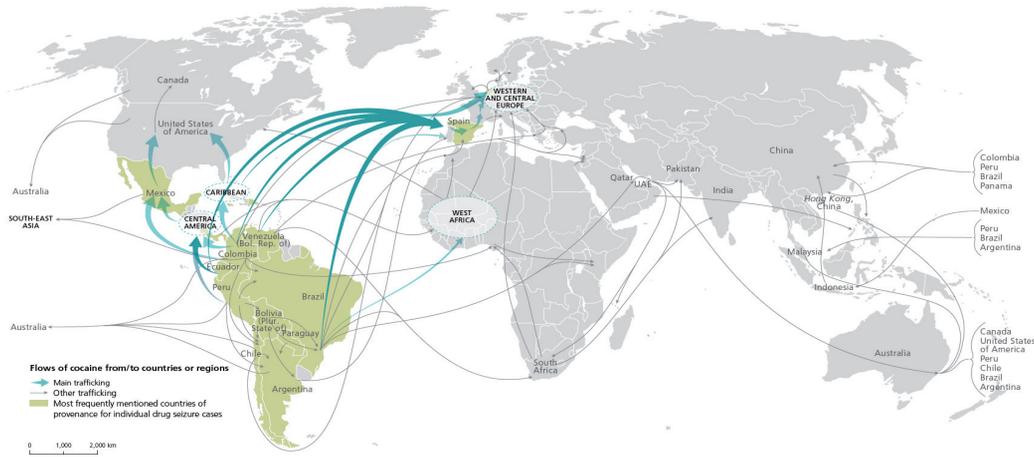
[그림 2-8] 1998년~2014년 지역별 코카인 남용자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그림 2-9] 세계 코카인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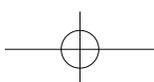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표 2-7]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	7	4	7	3	0	4	3	8	5	4
압수량(g)	4,772	79	8,869	298	0	2,153	63.62	1,215	11	10

- 1988. 10.경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에서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한 코카인 10g을 적발하였음(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
- 1990. 2.경 부산동부지청이 코카인 150g을 밀매한 마약사범을 최초로 적발하였으며, 1990. 9.경 서울중앙지검이 국제 코카인 밀수조직을 적발하여 코카인 976g을 압수한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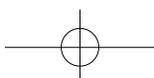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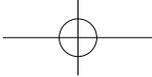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 코카인은 내국인들의 소비 사례보다는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는바, 주요 사례로는 ① 2006. 3.경 네덜란드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를 경유, 룩셈부르크로 코카인 약 4kg을 밀수출하려다 적발, ② 2008. 8.경, 9.경 2차례 브라질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 일본으로 코카인 8.8kg을 밀수출하려 한 일본인 운반책 3명 적발 등이 있었음
- 2014년도에는 우리 국민 3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 2015년도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2.8g을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에는 유학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량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주요 코카인 밀수사건

- 2004. 4.~5.경 캐나다인이 홍콩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의 지시로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으로 밀수출 (수원지검)
- 2004. 11.경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코카인 3g을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6. 3.경 네덜란드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프랑스를 경유, 룩셈부르크로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을 밀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인천지검)
- 2007. 4.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3.2g을 밀수입 (인천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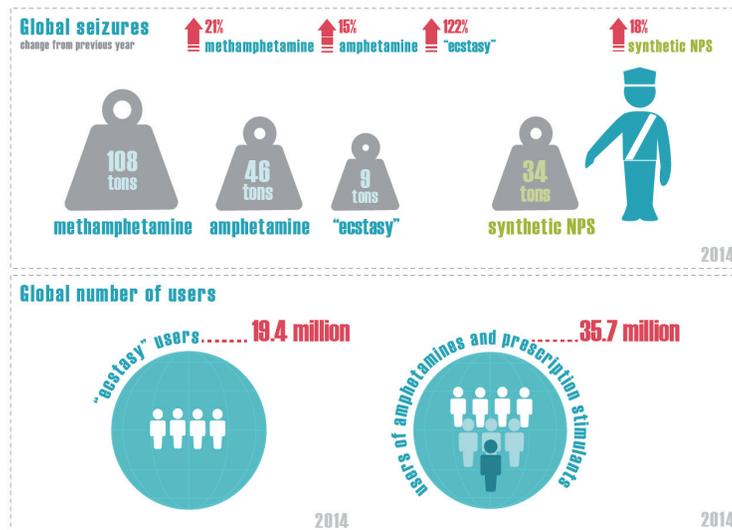
- 2008. 8.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5.2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9.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3.6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58.34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 (부산지검)
- ① 2013.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9.72g을 밀수입 (성남지청), ②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코카인 2.13g을 밀수입 (대전지검), ③ 2013. 1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18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3. 11.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코카인 13.3g을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4. 1.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4. 2.경 미국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약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4. 2.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7.8g을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5. 10.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2.8g을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② 2015. 10.경 캐나다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5. 1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2.03g을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④ 2015. 12.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0.5g을 밀수입 (인천지검)

제3절 암페타민류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⁶⁾

1. 전 세계 통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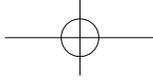
- 2014년 전 세계에서 압수된 ATS는 170톤 이상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09년 이후 전 세계 암페타민 압수량은 20톤에서 46톤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며, 2014년 엑스터시는 2009년 이후 평균 압수량인 4~5톤보다 두 배 많은 9톤의 양이 압수됨
- NPS 관련하여, 2014년 66개, 2015년 75개의 새로운 물질이 UNODC에 보고되었고,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독성과 부작용 역시 알려져 있지 않음
- 2013년 유럽에서는 7가지 이하의 성분이 포함된 110개 이상의 NPS가 단일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5%에 달하는 제품은 합성대마가 함유되었고, 25% 이상의 제품은 합성캐치논이 함유됨

[그림 2-10] ATS 및 NPS 관련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6) UNODC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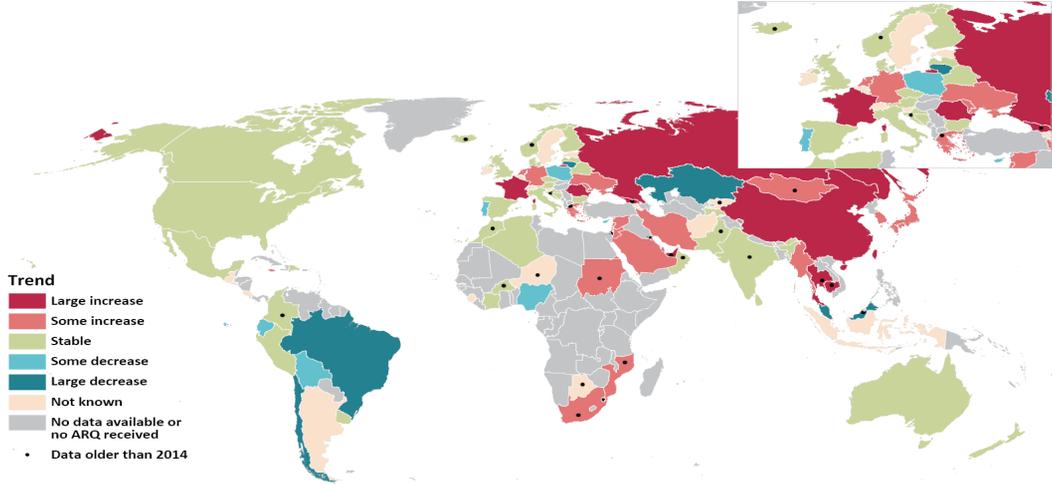


2. 소비(남용) 동향

- 많은 수의 NPS가 대마, 코카인, 헤로인, LSD, MDMA 또는 메트암페타민 같은 통제물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복제품들이며, 2015년 12월까지 보고된 NPS의 약리학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들 가운데 대다수는 합성대마의 수용기관 작용물질(receptor agonists), 각성제, 전통적인 환각제로 밝혀짐
- 2013년 미국에서 12세~34세 인구의 NPS 남용률은 1.2%이며, 12학년 학생들의 합성 대마 남용률은 2011년 11.4%에서 2015년 5.2%로 감소함
- 헝가리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167명의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류 투약자 가운데 92명이 HIV 양성반응을 보였고, 가장 많이 남용한 마약류는 펜테드론(pentedrone)⁷⁾으로 48%를 기록함
- 2015년 아일랜드에서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류 투약자들 가운데 HIV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일명 'chaotic'이라고 불리는 합성캐치논인 α -PVP 투약과 관련이 있음

7) 흰색가루 형상의 마약류로서 투여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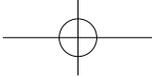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그림 2-11] 2010년 이후 암페타민 남용 경향 변화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3.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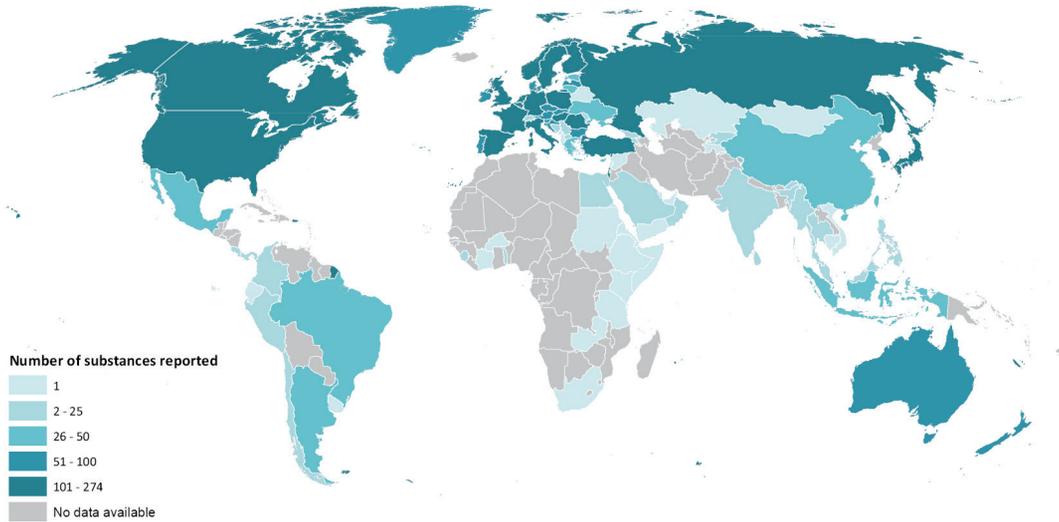
- ATS는 합성마약류로 사실상 어느 곳에서나 제조가 가능하며 헤로인, 코카인과는 다르게 식물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식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음
- 2012년~2014년 까지 최초로 보고된 대부분의 NPS는 합성대마였으나 2015년에 합성캐치논과 합성마약이 각각 20개와 21개가 보고되었고, 펜타닐 파생물질인 합성아편유사제와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진정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물질 21개가 보고됨
- 소량의 ATS는 간단한 ‘제조법(Recipe)’을 이용해 소위 ‘키친 랩(Kitchen Lab)’이라 불리는 작은 밀조시설에서 만들 수 있으나, 대량의 ATS는 복잡한 밀조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원료물질과 합성공정이 필요함



- ATS 시장에 대한 분석은 한정된 제조 관련 정보로 인해 전 세계 ATS 제조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동·동남아시아 같은 주요 시장의 데이터 또한 제한적이며, 게다가 전통적인 ATS의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NPS의 등장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짐
- 동·동남아시아 ATS 시장의 메트암페타민은 크리스탈 메트암페타민과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으로 나뉘는데 정제형은 ‘야바(Yaba)’로 불리며 순도가 낮고 다양한 외형과 색을 보이며 메콩강 유역에서 주로 제조되는데, 크리스탈 메트암페타민은 위 지역에서 대량 제조되어 다른 지역으로 밀매되고 있음
- 최근 엑스터시는 다양화 되고 있고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1)MDMA 성분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정제형 엑스터시, 2)고용량 MDMA의 정제형 엑스터시, 3)순도가 높은 MDMA가 함유된 가루형 엑스터시로 분류됨
- 다양한 종류의 엑스터시가 출현한 것은 MDMA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물질이 MDMA를 대체했기 때문이며, 2013년 압수된 정제형 엑스터시에는 MDMA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거의 없고 NPS와 같은 비(非)통제 물질이 함유됨
- 최근 고용량 MDMA 함유의 정제형 엑스터시가 유럽지역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EMCDDA⁸⁾에 따르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대량의 불법 MDMA 제조시설이 적발되었고, MDMA가 다량 함유된 정제형 엑스터시는 특유의 모양과 로고를 사용하며 유럽에서 판매됨

8) 유럽마약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Lisb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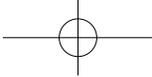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그림 2-12] 2008년~2015년 국가별로 보고된 NPS 개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4. 밀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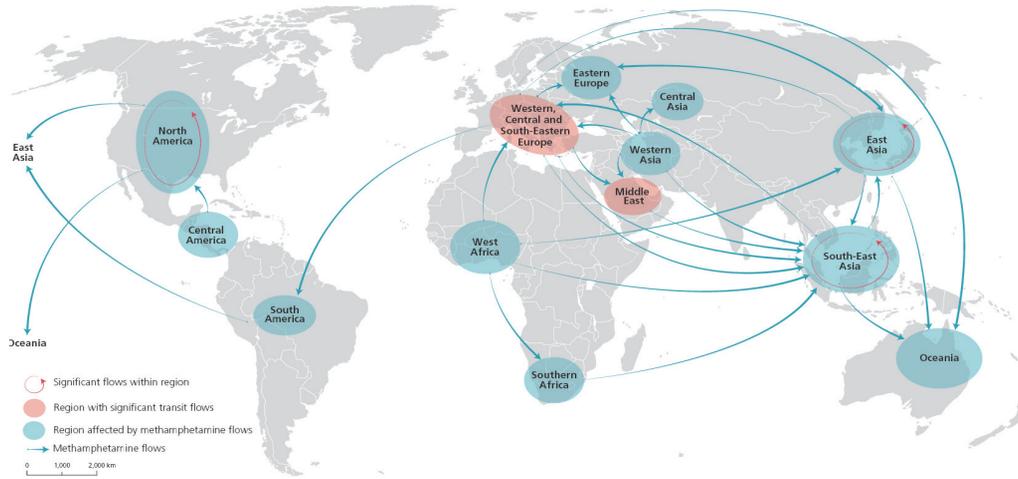
- 전 세계 ATS 압수량은 2009년 72톤에서 2011년 144톤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3년의 안정화 단계를 지나, 2014년 173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함
- 최근 몇 년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전 세계 ATS 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9년부터 전 세계 암페타민 압수량은 20톤과 46톤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엑스터시 압수량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4~5톤이었으나 2014년 두 배 이상 증가한 9톤을 기록함
- 2009년부터 동·동남아시아와 북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메트암페타민이 압수되고 있는데, 북미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09년~2014년 사이 동·동남아시아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거의 4배 이상 증가함



- 오세아니아에서 2012년 이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의 급격한 증가가 기록되었는데 호주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불법 제조되고 해상 화물에서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2013년과 2014년 서남아시아에서 압수된 대부분의 암페타민은 레바논과 시리아 산(産)이며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는 암페타민 밀매의 주요 경유지로 이용됨
- 지난 몇 년 간 대량의 NPS가 압수되었는데, 2014년 전 세계 압수량은 34톤으로 그 중에 합성대마가 북미에서 32톤이 압수되어 가장 많은 양을 기록, 이 가운데 26.5톤이 미국에서 압수되었고 합성캐치논의 전체 압수량은 2010년 처음 보고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3배가 증가한 1.3톤을 기록함
- 2008년~2015년 사이 644개의 NPS가 102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보고되었고, 2015년 12월까지 유럽에서 41개, 아시아 30개, 아프리카 16개, 미주지역 13개, 오세아니아에서 2개가 보고됨
- 2008년~2014년 사이 총 569개의 NPS가 보고되었고 2012년 26개, 2013년 69개의 물질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N-benzyl-1-phenylethylamine (벤질 페닐에틸아민)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6개 국가에서 보고되었으나 그 이후 더 이상 UNODC에 보고된 적이 없음
- 몇 년간 전 세계 케타민 압수량은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했는데, 2012년부터 압수량이 크게 증가하여 동·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압수되었으며 2014년 12톤을 기록하였고 중국에서 2012년 81개, 2013년 122개의 케타민 밀조시설이 적발됨
- 합성대마가 전 세계 NPS 시장에서 주종을 이루는데 북미,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이 압수되어 2014년 압수된 32톤의 합성 대마 가운데 미국에서 26.5톤이 압수됨

- 유럽 역시 많은 양의 합성대마가 압수되었는데 2013년 1.2톤, 2014년 5.4톤이 주로 키프로스나 터키에서 압수되었고, 키프로스에서 2012년 8.3톤, 2014년 4.4톤이 압수됨
- 전 세계 합성캐치논 압수량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배가 증가하여 1.3톤을 기록함
- 합성캐치논은 러시아에서 692kg, 중서유럽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312kg, 동·동남아시아 홍콩에서 226kg이 각 압수되었고 2014년 러시아에서 아미노인단(Aminoindanes) 438kg이 압수됨

[그림 2-13] 2011년~2014년 지역간 메트암페타민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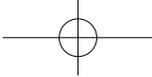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가. 메트암페타민 밀조 추세

-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메트암페타민 밀조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수입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서 메트암페타민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제조법이 인터넷으로 유포됨에 따라 소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① 2010년 화학박사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② 2012년에는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③ 2013년에는 호주인이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일반인이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④ 2015년도에는 조직폭력배가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나. 향정사범 추세(메트암페타민 등 ATS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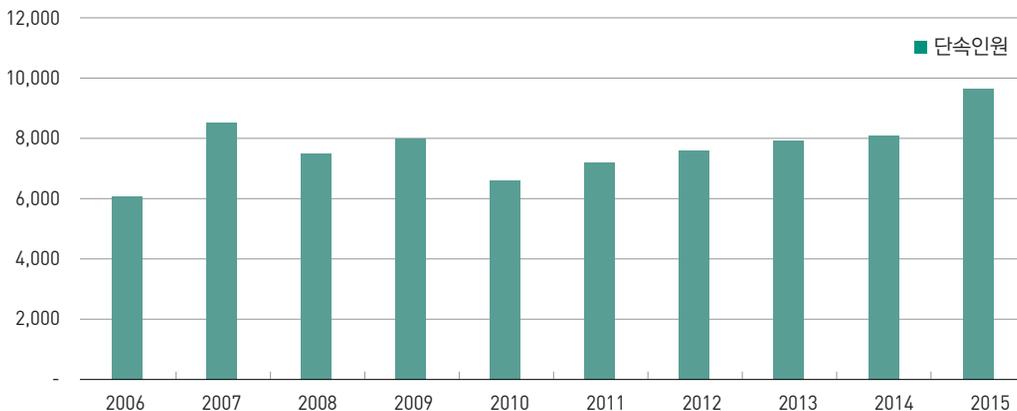
[표 2-8]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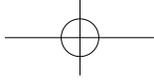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속인원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8,121	9,624
증감률(%)	12.2	41.9	-12.5	6.8	-15.0	6.7	5.6	3.6	2.8	18.5

- 향정사범은 2011년도부터 증가 추세로 2015년도에는 향정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80.7%를 점유, 메트암페타민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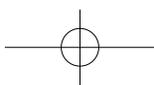
[그림 2-14] 향정사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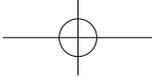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사건

- 2008. 5. 중국인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부산지검)
- 2008. 10.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수원지검)
- 2008. 12.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카타르로부터 필로폰 3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로부터 필로폰 약 856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로부터 필로폰 1kg과 1.7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1.경 대만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2kg을 여행용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2.경 일본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액자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3.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6.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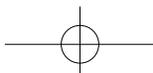




- 2010. 3.경 중국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87.9g을 책자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8.경 루마니아인이 가나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가방 옆면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1.경 싱가포르인 3명이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영양갱과 비누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1.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김해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1. 3.경 루마니아인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1.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4.경 우리 국민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3.1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6.경 미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2.6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9.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3.경 우리 국민이 필리핀으로부터 필로폰 1.4kg을 골프백 밑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7.경 우리 국민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캐리어백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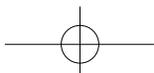


- 2012. 8.경 영국인이 피지로부터 필로폰 2.5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10.경 우리 국민 6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7.4kg을 화물선에 은닉하여 포항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2. 11.경 독일인이 케냐로부터 필로폰 1.8kg을 배낭 속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3. 1.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2kg을 신발 6켤레에 은닉하여 청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3. 3.경 호주인이 필로폰 2kg을 허벅지 부위에 반창고로 붙여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1.3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성남지청)
- 2013. 4.경 영국인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4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5.경 일본인 2명이 마카오로부터 필로폰 6.24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8.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74g을 기계부품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3. 10.경 독일인이 프랑스로부터 필로폰 3kg을 여행용가방 밑바닥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1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5.7kg을 대형 커피머신 2대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05kg을 아이스박스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3.경 우리 국민 3명이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15.1kg을 라벨링 머신 기계 내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전주지검)
- 2014.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5kg을 핸드백 9개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6.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1kg을 배낭 가방 등에 은닉하여 거제시 고현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4. 7.경 일본인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6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김해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4. 10.경 우리 국민 4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3.7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1.경 대만인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복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3.경 말레이시아인 2명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4.15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4.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kg과 발기부전치료제 약 70만정을 컨테이너 안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평택지청)





- 2015. 8.경 우리 국민 2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8kg을 선박 조리장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10.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805g을 화물로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선박 배송 후, 인천 부평구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5. 11.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대구지검)
- 2015. 12.경 미성년자인 우리국민 2명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496g을 김해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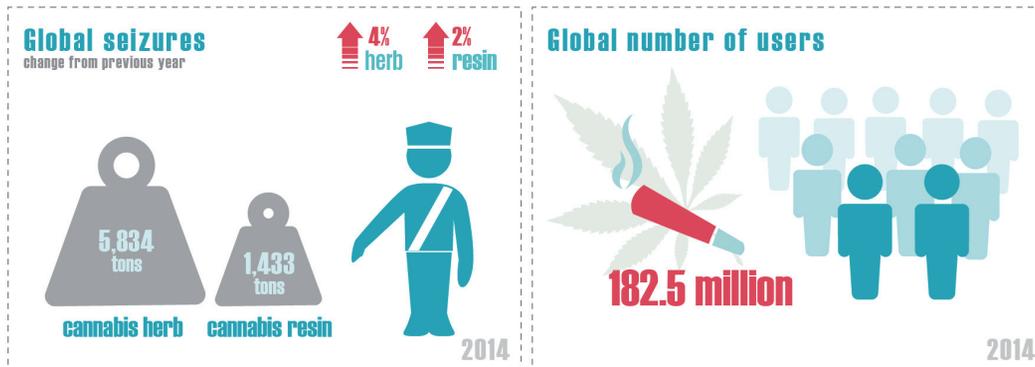


제4절 대마⁹⁾

1. 전 세계 통계 개요

- 최근 전 세계 대마 소비는 안정화 단계로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3.8%가 대마를 경험해본 적이 있으며 1998년부터 이 비율은 안정화 추세임
- 미국 내 대마는 연방차원에서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의 Schedule 1¹⁰⁾로 금지되어 있으나, 지난 4년간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레곤 주(州) 등 4개 지역에서 비의료 목적 대마의 생산, 유통, 판매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대마사용이 합법화되었음

[그림 2-15] 대마 관련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2. 소비(남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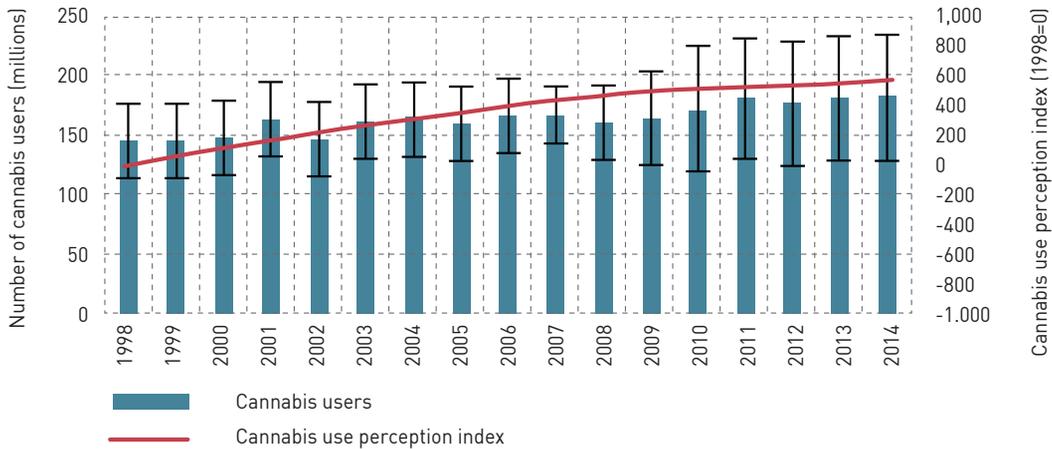
-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3.8%인 1억 8,300만 명이 대마를 남용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안정된 수치임

9) UNODC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1.~4. 부분)

10)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사용 및 처방이 불가능한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약물, Schedule은 1~5까지 구분되어 있음

- 미주지역과 아프리카는 대마초의 주요 생산지이자 소비지역이며, 2014년 미주지역 압수량이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3/4을 차지하였고, 아프리카는 전체의 14%, 유럽은 5%의 압수량을 기록함
- 유럽,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는 대마수지가 주로 소비되며 대부분의 대마수지는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산(産)임

[그림 2-16] 1998년~2014년 전 세계 대마 남용자수 추이 및 대마남용 인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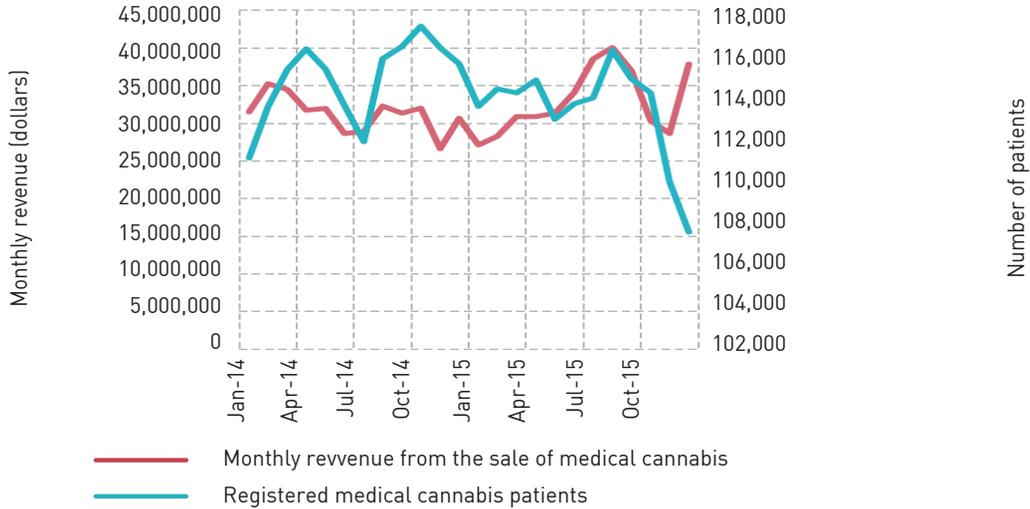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3. 생산 동향

- 대마초 남용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 2010년 최대량을 압수한 후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 멕시코에서의 대마초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미국에서 대마초의 비범죄화와 합법화 이후 단속이 줄었기 때문임
- 최근 수년간 모로코산(産) 대마수지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밀반입되고 아프가니스탄산(産) 대마수지는 근접 국가인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밀수출되며 레바논산(産) 대마수지는 인접 지역으로 불법 유통됨



[그림 2-17] 2014년~2015년 미국 콜로라도 주(州)의 의료용 대마 소비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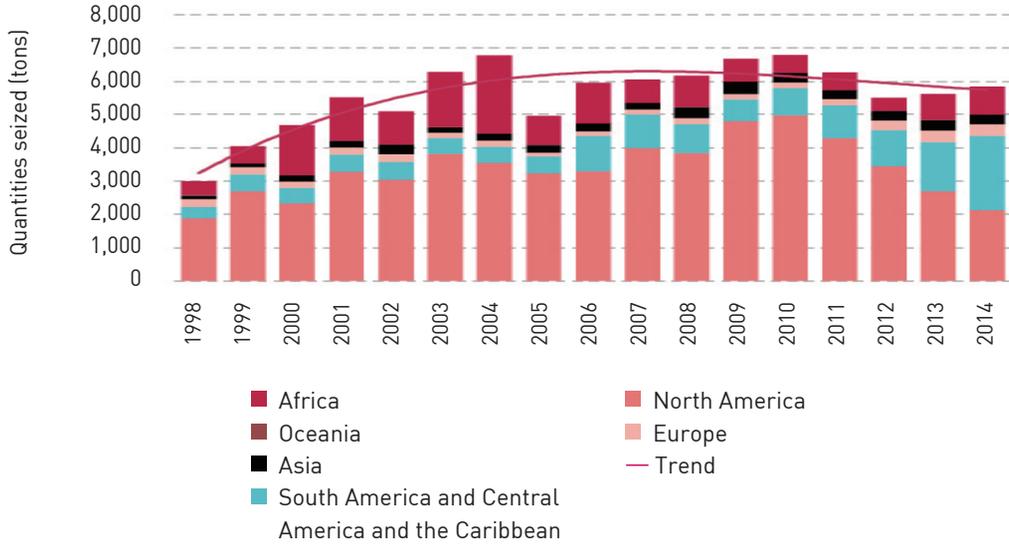
Part 2. 미약분별 인민원형
PROSECUTION SERVICE

4. 밀매 동향

- 2014년 미주지역에서 전 세계 압수량의 3/4에 해당하는 대마초가 압수되었고 아프리카는 14%, 유럽은 6%를 차지하였는데, 북미가 2014년 전체 대마초 압수량의 37%를 차지하였고 남미는 24%, 카리브해 지역이 13%를 차지함
- 1998년 유럽의 대마수지 압수량은 전 세계 압수량의 77%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48%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 43%까지 감소함
- 2014년 가장 많은 대마수지가 압수된 지역은 서·중유럽으로 전 세계 압수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중 스페인에서 26%를 기록하였고, 북아프리카에서 전체 압수량의 32%가 압수되었으며, 서남아시아에서 전체 압수량의 25%가 압수되었는데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압수됨

[그림 2-18] 1998년~2014년 지역별 대마초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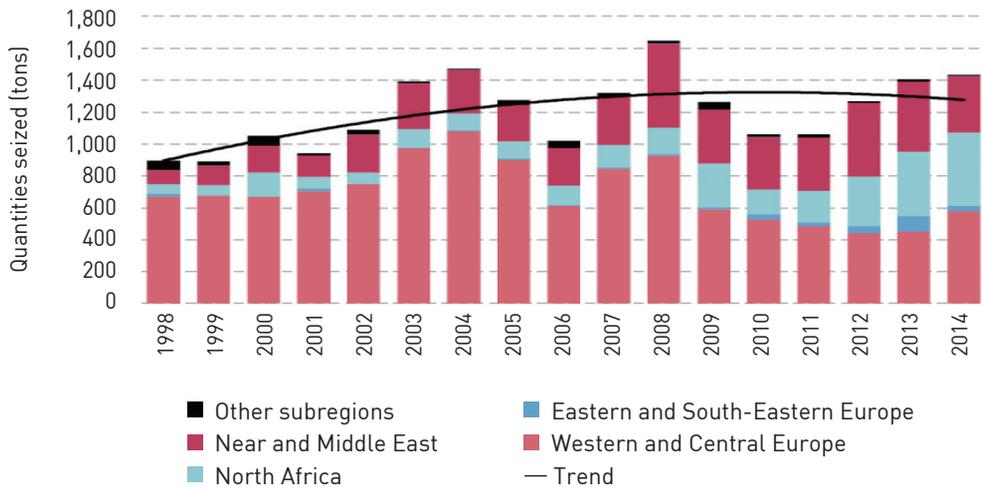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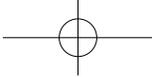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그림 2-19] 1998년~2014년 지역별 대마수지 압수량

(단위: 톤)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5. 국내 대마 관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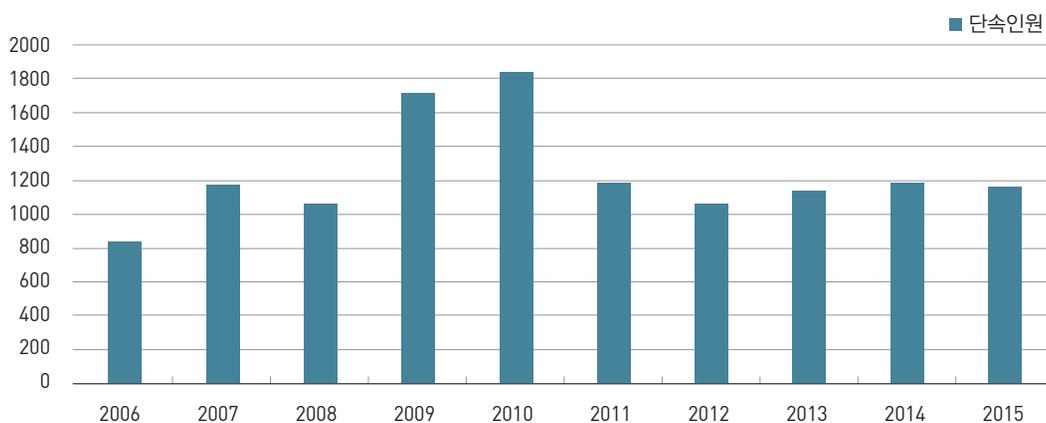
[표 2-9]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추세

(단위 : 명)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속인원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1,187	1,139
증감율(%)	-19.1	40.1	-10.7	63.8	7.3	-35.3	-12.4	13.0	0.8	-4.0

-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마 대량 밀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는바, 주요 사례로는 ①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2회 대마 7kg, 8kg 등 밀수입, ②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 3.5kg 밀수입, ③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 5kg 밀수입, ④ 2009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백인 여성을 지게꾼으로 이용하여 대마 4.3kg 밀수입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이 대마 6kg 밀수입한 사례 등이 있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량 밀수 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용 목적의 소규모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 및 유학생 등에 의해 밀수되고, 흡연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그림 2-20] 대마사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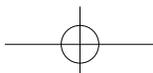
주요 대마 밀수사건

- 2007. 2.경 우리 국민이 태국 방콕으로부터 대마 200g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한 뒤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포항지청)
- 2008. 1.경 일본인이 태국 방콕으로부터 대마 농축액인 해시시¹¹⁾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몸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3.경 러시아인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부터 해시시오일¹²⁾ 약 86.65g을 화장품통 안에 은닉하여 속초항으로 밀수입 (속초지청)
- 2008.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1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7.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약 114.04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제주지검)
- 2009.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부터 대마 948g 및 대마수지 12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각 5.1kg, 5.1kg을 나무조각품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6.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¹³⁾ 60개(약 1,497g)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창원지검)

11)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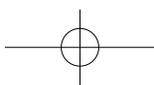
12) Hashish Oil은 해시시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시시 보다 2~3배 정도 강함

13) weed cookie는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임





-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4.3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6kg을 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 802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경 캐나다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강정 147.9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200.83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2.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171.5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8.경 캐나다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7.경과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505.65g을 미 군사우편으로 밀수입 (수원지검)
- 2012. 8.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853.09g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 (진주지청)
- 2012.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944.57g을 미 군사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3. 5.경 러시아인이 러시아로부터 대마 946g 및 해시시 55g을 선실 내에 은닉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3. 7.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약 837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10.경 네덜란드인이 네덜란드로부터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4.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445.41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 서부지검)
- 2015. 3.경 우리 국민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대마 약 35.02g, MDMA 3.39g, 사일로신 20.47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5.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대마 약 4.5g을 팬티 속에 은닉하여 대구공항으로 밀수입 (대구지검)
- 2015. 6.경 부산세관이 부산항에 정박한 캐나다발 대만행 선박(선박국적은 파나마)을 수색하여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약 9kg을 적발 (부산지검)
- 2015. 12.경 이집트인이 이집트로부터 대마 16.37g 및 대마수지 23.21g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수입 (포항지청)